

Efficacy of Lamivudine versus Entecavir in Patients with Hepatitis B Virus-Related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¹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stitute of Gastroenterology, ²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South Korea, ³Liver Cirrhosis Clinical Research Center, Seoul, South Korea, ⁴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 South Korea

*Hye Sun Shin¹, Seung Up Kim^{1,2,3}, Jun Yong Park^{1,2,3}, Do Young Kim^{1,2,3}, Kwang-Hyub Han^{1,2,3,4},
Chae Yoon Chon^{1,2,3}, Sang Hoon Ahn^{1,2,3,4}

Background: There has been little information on the antiviral efficacy and safety of lamivudine and entecavir in hepatitis B virus (HBV)-related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Thus, we compar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lamivudine versus entecavir in patients with advanced HCC who have relatively short survival rate. **Methods:**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134 nucleotide analogue-naïve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CHB) who were diagnosed as having advanced HCC (TNM stage III-IV) between January 2005 and September 2009. Of these, 87 (64.9%) and 47 (35.1%) patients received lamivudine (LAM group) and entecavir (ETV group), respectively, after HCC diagnosis.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115 men and 19 women) was 53 years. The median HBV DNA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level was 6.30 (range, 4.72-8.72) log10copies/mL and 61.50 (range, 11.00-809.00) IU/L, respectively. Most patients (n=98, 73.1%) had Child-Pugh class A liver function whereas the other 36 (26.9%) had Child-Pugh B. Sixty five (48.5%) and 69 (51.5%) patients had HCC with TNM stage III and IV, respectively. Treatment outcomes during follow-up period including virologic, biochemical and serologic response (HBsAg loss/seroconversion) and appearance of antiviral resistance were similar between LAM and ETV groups. On multivariate analysis, Child-Pugh class, alpha-fetoprotein, and TNM stage were identified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overall survival (all $p < 0.05$). However, the use of lamivudine or entecavir did not influence overall survival. The overall survival of LAM and ETV group was similar (median 9.60 vs. 13.60 months; log-rank test, $p=0.493$). In both groups, HBV flare up and interruption of HCC treatment due to hepatic dysfunction was not noted. **Conclusions:** The treatment outcome of lamivudine and entecavir was similar and antiviral treatment did not influence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advanced HCC. Thus, lamivudine which is less expensive than entecavir might be sufficient to control HBV in patients with advanced HCC.

간동맥 화학색전술 후 간세포암종에 동반된 전이성 폐암의 호전 1예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내과¹,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²,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병리과³,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내과⁴,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내과⁵

*한지수¹, 김영석¹, 김상균¹, 태재웅¹, 이재명², 김희경³, 이세환⁴, 정승원⁵, 장재영⁵, 김홍수⁴, 김부성¹

서론: 간세포암종에 동반되는 전이성 폐암의 치료에는 sorafenib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는 생존률 연장에는 도움이 되나 폐 병변의 치료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간세포암종이 국소 치료 요법의 적응증이 될 경우 동반되어 있는 전이암에 대하여 치료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국소 치료 요법 후 전이암의 악화 또는 호전에 대한 상반된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국소 치료 요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한 후 폐의 전이성 병변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는 있으나 이들은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고 영상 소견만으로 진단된 것이어서 실제로 악성 전이가 호전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국소 치료 요법 이후 오히려 전이암이 악화될 사례 역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 가능한 간세포암종에 동반된 전이암의 향후 치료 방침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저자들은 간동맥 화학색전술 후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폐의 전이성 간세포암이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3세 남자 환자가 만성피로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만성 음주자로 만성 B형 간염의 과거력이 있으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 중이었다. 내원하여 시행한 간 CT 검사에서 간의 S4 영역에 동맥기에 조영증강되고 문맥기에 소실되는 2 cm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어 간세포암종을 진단하였다. 당시 검사에서 간경변증과 함께 문맥압 항진증, 복수와 식도 정맥류를 동반하고 있었다. 병기 평가를 위해 시행한 흉부 CT 검사에서 우하엽에 내부 괴사를 동반한 결절성 경화가 발견되었으며 경피부 경흉강 폐생검술을 이용한 조직검사서 Edmonson's grade II의 지주형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환자의 간세포암종은 국소 치료 요법의 적응증이 되어 전이암의 치료는 추후 고려하기로 하였고 간세포암종에 대해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다.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행 3주 후, 추적 CT 검사에서 S4 영역의 간종괴는 리포오들이 흡수되었으며 조영증강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우하엽의 폐종괴의 크기는 매우 감소하였다. 현재 환자는 2차례의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더 시행하였고, 폐의 종괴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